‘이재명 정부’ 집권 여당 첫 원내대표 오늘 선출 ‘촉각’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첫 적용
김병기 “李 정부 든든히 뒷받침”
서영교 “대통령과 호흡…경제 회복”
국힘, ‘3선’ 김성원·송언석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가 12일 시작된 가운데, 후보들은 방송 출연과 소셜미디어(SNS) 메시지 등을 통해 막판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섰다.

김병기·서영교(이상 기호순)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의 첫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친명(친이재명) 성향이 주류를 형성한 당원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앞다퉈 최적의 국정 동반자라는 점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2기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후보로 나선 김병기 의원(왼쪽)과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김병기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동안 민주 정부 성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내란 종식과 국민 통합은 제가 그전부터 해온 업무라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에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무너진 외교를 복원하겠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코스피 5,000 시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내대표가 된다면 강력히 지원하고 든든히 뒷받침할 것을 각오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각계의 지지 메시지를 공개하는 한편, 조선 의원들을 향한 공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언제나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리고 대통령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어 보겠다”며 “좋은 원내대표가 되어 경제를 살릴 마중물을 만들고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그동안 당원분들과 얼마나 소통을 잘해 왔느냐 이런 것이 변수일 것 같은데, 제가 최고위원을 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님보다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다. (당원 선거)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에서도 이 대통령이 등장하는 쇼츠와 이미지를 연이어 올리며 “당원 동지들의 한 표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국회의원 투표(80%)를 거쳐 13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선거 기간 불거진 김 의원 아들의 국정원 취업 관련 논란이 판세에 영향을 줄 변수가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논란이 재부상하며 선택을 고심 중인 의원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과, 오히려 이 논란을 계기로 김 후보에게 표심이 결집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관측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수도권 3선’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과 ‘TK 3선’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이날 나란히 출사표를 던지며 야당에서도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지역·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흐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은 각각 경기도와 경북에서 내리 3선을 한 만큼, ‘수도권 대 영남권’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에 조경태·김기현·나경원·박대출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박찬대·권성동 여야 원내대표, 나란히 퇴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나란히 퇴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됐다”며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지켜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 누가 뭐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라며 “제 원내대표 임기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고난의 대장정’, 아니 ‘영광의 대장정’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자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당권 도전 계획과 관련해선 “주변에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새 정부의 과제, 민주당의 과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당내 친명(친이재명) 계 지지를 받으며 단독 입후보해 선출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찰과 혁신이라는 가치가 당권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李 대통령, 이태원 참사 현장 참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혁신, 3대 특검 후보 추천… 대통령 3일 이내 임명

내란특검법 후보 조은석·한동수
김건희특검 후보 민중기·심재철
채상병특검 후보 이윤제·이명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각각 3인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 임명하게 돼 다음달 초부터는 3대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 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특별검사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한 전 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심 전 국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 전 부장이 각각 추천됐다.

윤 대변인은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 추천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두 당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15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는 셈이다. 특검별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새 정부 ‘국정기획위’ 주요 인사 절반 호남 출신

지역 공약 반영·현안 해결 청신호
부위원장에 무안 출신 김용범 임명
고흥 박홍근·보성 이해식 등 포함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하는 가운데, 부위원장과 7개 주요 분과장의 절반 가량이 호남출신 인사들로 채워져 지역 대선공약 반영과 주요 현안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국정기획위 출범·현판식은 16일 광화문 일대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추진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출범을 앞두고 이한주 위원장은 전날 3명의 부위원장과 위원회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한 7개 분과 위원회 분과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여당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던 전례에 따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김 실장은 전라남도 무안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를 나왔고, 진 정책위 의장은 전북 전주 출신의 3선(서울 강서구을) 국회의원이다.

7개 분과장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최민희 민주당 의원(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선임됐다.

박홍근 기획분과 분과장은 고흥 출신 4선 의원(서울 중랑구 을)이고, 이춘석 경제2과 분과장은 전북 익산출신 4선 의원(익산시 갑)이다. 또 정치행정분과 분과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은 보성 출신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기획위원회 주요 인사 11명 가운데 5명이 호남 출신들로 전면 배치됐다.

분과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조실 국무1차장이 맡는다.

서울=김선욱 기자

李 대통령, 오늘 재계총수 간담회… 경제행보 가속

경제 활성화 협력 당부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점검한 데 이어 13일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하는 등 경제 성장과 회복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5대 그룹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경제인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제인들과의 첫 만남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과제인 경제 성장 동력 확보가 주된 논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국제적인 무역 갈등의 심화와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 등으로 장기간 경기 침체가 이어져 온 만큼,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등에 나서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김선욱 기자·연합뉴스